

다이제스트 시대 정보의 의미

김영한

서강대 사학과 교수·역사학회 회장

우리는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매일같이 집으로 배달되는 각종 출판물과 인쇄물을 보면 이것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지식 정보의 범람은 오히려 그에 대한 거부감을 낳게 한다. 대부분의 선전책자나 광고지들은 개봉도 하지 않은 채 버리게 되므로 광고주의 입장에서 볼 때 역효과라 할 수 있다.

일간신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 속사정이야 어쨌든 지면이 40면으로 늘어난 것은 전해 줄 기사와 정보가 많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지면이 늘어나서 독자들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었는가?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문은 잘 읽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간신문 두 개를 본다고 가정하면, 매일 아침 80면을 훑어보아야 하는데 바쁜 세상에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각 지면의 주요기사 제목만 대충 보고 넘어가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지면이 적었을 때보다도 기사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사는 꼴이니 정보의 풍요에 비하면 지식의 빈곤을 초래한 셈이다.

일반 독자는 그렇다치고 전문 언론인은 어떠한가. 어느 논설위원의 말을 빌리면 아침에 출근하여 주요 일간지의 기사내용들을 점검하는 일로 오전시간을 거의 다 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의 중요 기사를 요약 발췌하는 전속 직원을 논설위원실에 별도로 두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므로 전문인들도 이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을 소화하여 받아들여야 할 수 없이 '다이제스트'(digest)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는 다이제스트 시대라고 할 수도 있다.

다이제스트 현상은 출판계와 독서풍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책방에 나가보면 옛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간들이 쌓여 있다. 이처럼 책들이 많이 출간됨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들은 책이 안팔린다고 울상이다. 교육열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우리나라에서 왜 책이 안팔리는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이제스트 책만을 주로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책의 부피가 크면 인기가 없다.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200페이지가 넘는 것을 추천하면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교양과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고등학교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대학생이 한 둘이 아니다. 원본보다는 간추린 책이, 원전보다는 해설하거나 주석을 단 책이 더 중시되고 있다. 심지어는 만화로 된 책이 학생과 일반인에게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판매부수가 많은 것은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이제스트가 잘된 학습교재와 참고서이다.

너나할 것 없이 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우선 부담없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과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간단하고 빨리 얻을 수 있는 책을 선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다이제스트 책을 선호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거나 비난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이제스트 책은 대중을 계몽하고 전문지식을 일반화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물을 기계적으로 보고 사고를 단순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며 특히 효용과 기능을 중시하여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소홀히 여기게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다이제스트 책만으로는 물질적 풍요속에서 느끼는 정신적 빈곤을 채워 줄 수 없으며 많은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도 생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를 깨우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올해에도 많은 양서들이 출간되고 독서풍토가 쇠신되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한결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한다.

저자 인터뷰 2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펴낸 이부영 교수

3 《한국방송과 50년》 펴낸 노정팔씨

초점 4 세기말 격동 속에 구조 재편 움직임 활발

특집/불황극복을 위한 모색 6 자신감 있는 기획은 정보활용이 핵심

7 합리적인 수요예측이 가능한 출판예고

8 실패하지 않는 마케팅의 출발

9 출판경영에도 혁신의 새바람 일어야

신년 방담 10 여성출판인 4인의 신년 방담

(김동금 / 김혜경 / 온현정 / 유명자)

출판화제 16 새로운 희망구로 떠오른 동아시아 연구 활발

17 '인간적인 도시문화' 다룬 책 잇따라

화제의 신간 18 일제시대 최고 장수잡지 '삼천리' 영인본 발간

새책 흐름 20 시인들의 테마여행서 출간·외 / 문학·예술

22 '전통문화'를 소개한 그림책·외 / 어린이

시론 24 보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 - 이제하

재미있는 기획산책 25 확대와 축소의 자유로운 상상력 - 장익순

신년 에세이 26 내 삶을 만든 책들 - 강우방

확대 서평 27 구승희 《에코필로소피》 - 이진우

서평 28 이운구 외 《목가철학연구》 - 기세춘

후프나겔 《해석학의 이해》 - 정기철

30 박재간 외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 임춘식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 김정수

31 유진 오덤 《생태학》 - 조도순

시집 서평 32 곽재구·이승욱·심재상의 신작시집 - 장은수

정보 라이트 34 번역물 찾아내기 - 조승훈

36 신간안내 / 44 새로 나온 책

표지 / '팔만대장경' 판고 내부·사진 김지옥

알림

"지면을 새롭게 꾸밈니다"

《출판저널》이 새해를 맞아 지면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서평의 분량을 늘리고 문학·예술, 인문·교양, 과학·어린이 등 분야별 화제기사와 출판동향을 다루는 '새책흐름'을 신설, 보다 전문화된 각 분야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호부터 2건의 기획연재물을 시작합니다. 외국의 다양한 기획물을 통해 국내 출판사의 기획에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재미있는 기획산책', 번역출판의 구체적인 노하우를 테마별로 안내하는 '정보라이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출판저널》은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정보와 깊이있는 기사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판저널》 편집부